


### 공동체 소식



**연중 제4주일**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 1월 기도지향

- + 우리 본당 공동체
- + 본당 공동체의 각 가정

#### 주님 봉헌 축일(2.2) 초봉헌

- 초축복 예절: 오늘 교중미사 중

#### 총구역회 모임(구역장 모임).

- 일시 : 오늘(1/31)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본당회관)

#### 구역별 모임 안내

- 1구역 : 2/6(토) 저녁7:00, 12317 W 102nd St. Lenexa, KS, 66215, 정석원 라파엘.
- 2구역 : 2/5(금) 저녁7:30, 1208 W 67th St. Kansas City, MO, 64113, 서한석 시메온.
- 3구역 : 2/13(토) 저녁7:00, 15304 Foster St. Overland Park, KS, 66223, 김병철 베네딕도.

#### 이번 주간 평일미사, 신심미사 안내

- 평일미사 - 2/2(화) 저녁 7:30, 2/5(목) 오전10:00,
- 예수성심 - 2/6(금) 오전10:00,
- 성모신심 - 2/7(토) 오전10:00.

#### 설 합동위령미사 봉헌

- 일시 : 2/8(월) 오전 11:00
- 내용 : 위령미사예물 봉헌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10(수)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 미사 : 2/10(수) 저녁 7:30. 미사 중에 재의 예식이 있습니다.
- 내용 : 각 가정 십자가에 걸린 '성지'를 2/7(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십시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내용 : 사순시기 주일미사 40분 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시작합니다.

#### 캔사스대교구 '자비의 특별희년 나눔초대 -Arch-bishop's Call to Share'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미 많은 신부님들이 동참하고 있고,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파 견
46	218	168	400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정예찬 미카엘	안광민 야고보
	김정원 안젤라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이원준 요한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채린 소피아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대연 요셉	김정서 사비나	김아람 크리스티나
차주	정수한 베드로	문석찬 요셉	문문주 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차주	조정희, 김계숙, 조지연

#### 헌금 봉사자

금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4	70명	433불	600불
(총 3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은, 마음이 닫혀 있는 이들에게서는 거부를 당하지만 믿는 이들에게서는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아 기쁘게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간청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 성화해설

아기 예수님의 성전 봉헌 (렘브란트 1629, 유채화)

<아기 예수님의 성전 봉헌>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시메온의 예언처럼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의 빛, 계시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루카 2,25-39 참조)임을 나타내고 있다. 렘브란트는 감각적인 빛과 어둠을 넘어서 인간의 깊은 내면의 빛까지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깊은 어둠 속에 숨겨진 구원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의 빛(후광)을 통해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1,4-5.17-19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화답송 : 

주 - 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 하리이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옵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
-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12,31—13,13<또는 13,4-13>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21-30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파견되신 것이 아니다.>

# 쉐 마

## 나의 예언적 사명은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말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던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암흑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예언을 한다는 것은 큰 위험이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듣기 싫어하는 내용을 담은 하느님의 뜻을 전해야 할 때는 자기 민족에게 외면당하는 결과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이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삶에서 충분히 확인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는 조롱을, 동족에게는 박해를 받습니다. 임금으로부터는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체포되어 동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마저 외면당해서 외톨이가 되어 친지들의 혼인 잔치에도,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에는 이집트로 도망치던 동료들에 의해 이집트에 끌려가던 길에 살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1독서는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소명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삶이 어떨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선포 대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느님은 당신이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복음서의 예수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초기에 나자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사가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시는데, 오늘 복음 환호송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당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나자렛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예수가 하느님에게서 온 메시아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자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을 힐책하는 예수를 끌고 고을 밖으로 가서 벼랑 끝에 가 그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떠올려 줍니다. 사람들은 결코 하느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숨을 빼앗지만, 하느님은 그를 다시 살려 주십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분을 영원한 죽음에 빠트리지 못할 것이고, 그분의 입을 막지 못할 것이며, 하느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나자렛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루카 4,21-30을 두고 루카 복음서 전체의 결론을 미리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예언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외로운 삶, 고난의 삶, 손해 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억울하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예언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적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참된 예언자의 입을 막을 수 없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계획을 망가트릴 수 없을 것입니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사랑을 실천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을 실천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한 율법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인사를 한 후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전혀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엔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고 묻자 그 율법 교사는 무엇이라 대답했나요?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0,25-29

율법 교사는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가 버렸습니다. 길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못 본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0,30-32

강도를 만나 다친 유대인을 보게 된 한 사마리아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환자를 돌보

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0,33-37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민족은 본래 조상이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앗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제로 이민족인 앗시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보존하지 못하고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개에 비유하며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스라엘 사람을 측은히 여겨 돌보아 준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잘 실천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 묵상

## 물음의 종류

- 같이 보여도
- 같은 물음이라도
- 묻는 이의 마음에 따라
- 답이 있는 물음이 있고
- 답이 없는 물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루카 4,22)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3